남원소방서, 사랑의 헌혈 동참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 관계자는 복무방침인 '언제나 생명존중'을 실천하고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헌혈에 소방공무원과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가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추운 날씨 등으로 인한 헌혈자 감소로 향후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소식에 헌혈이 가능한 소방공무원 15명과 의용소방대연합회 50명이 단체로 헌혈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헌혈버스 사전소독, 개인별 마스크착용 및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어려운 시기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단체 헌혈에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폭설속에서도 신속한 제설작업에 최선"

군산시 대야면, 민 · 관 합동 트랙터 활용 마을 길 제설작업 실시

군산시 대야면은 연말연시 폭설 피해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자율제설단과 함께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야면 발전협의회의 자율제설단 김병학 단장은 제설단 구성 전 홀로 지난 2005년경부터 눈만 오면 시내버스가 마을로 오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면서 트랙터를 활용해 마을 길 제설작업을 시작했다.

이에 2015년 시에서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를 보급했을 때 지역 자율제설단을 처음 결성해 뜻 있는 주민 5명이 매년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제설단은 첫 폭설이 시작된 지난 12월 30일 이후 새벽 5시부터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에 쌓인 눈을 트랙터 장착 제설 장비를 활용해 제거하며, 아침은 트랙터 안에서 빵으로 때우면서 출근길 차량 통행 및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7개 리, 55개 마을로 형성된 드넓은 지역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노판철 대야면장은 "강추위와 계속되는 폭설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제설작업에 동참한 제설 단원과 주요도로변의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준 군산시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민관의 효율적인 대응 덕분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러한 민관 협의체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살기 좋은 대야면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김제 백구면 새마을부녀회, 행복나눔 라면 기부

김제시 백구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송연순)는 지난 13일 백구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라면 43박스를 기부하며 이웃 사랑의 손길을 이어갔다.

백구면 새마을부녀회는 올겨울 김장나눔행사를 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 백구면의 이웃들에게는 따스함의 대명사로 손꼽히고 있다.

송연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최근 한파로 인해 보일러가 터지고 수도가 어는 등 어려움에 처한 백구면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회원님들과 함께 정성을 모으게 되었다"고 말해 주변에 감동을 주었다. 신형순 백구면장은 "백구면을 위해 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손길을 전해주시는 부녀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강남무인항공, 장수군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강남무인항공(대표 황철규)은 14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장수군에 전달했다.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강남무인항공은 장수군 천천면에 소재한 국가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소중하게 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적상면, 취약계층 109 가정 방문 이웃돕기 물품 전달

연일 계속되고 있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위기가구들과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두렵기만 하다.

무주군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이 추운 겨울철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을 찾아 피해상황 점검과 이웃돕기 물품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적상면 맞춤형복지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 복지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맞춤형복지팀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109 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온열매트 와 방울토마토와 전병, 화장지, 쌀, 유자청 등을 전달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최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속에서 동파 등 피해를 입은 3가구를 찾아 해당 부서 연계와 후속조치를 벌이면서 이들 가정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했다.

또 맞춤형복지팀은 각 가정을 방문한 자리에서 안전한 전열기구 사용법과 동파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등 취약가정들과의 애로사항을 풀어 주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정성을 보였다.

적상면 행정복지센터 백승훈 면장은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이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라며 "적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편안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NH농협 정읍시지부, 폭설 피해 농가 물품 전달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용균)는 지난 13일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과 함께 폭설 피해 현장(2동 전손, 1동 파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폭설로 인해 축사에 피해를 입은 관내 농업인(정읍시 고부면)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피해 농업인에게 격려금과 생활물품을 전달했다. 이용균 지부장과 김재기 조합장은 "폭설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협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을 위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완주군 용진읍, 이웃돕기 후원 이어져

완주군 용진읍에 이웃돕기 나비효과가 곳곳에 퍼지고 있다. 14일 용진읍에는 구억리 소재 초포가든에서 100만원, 간중리 삼남배농원에서 100만원, 익명의 전 용진읍장이 150만원을 후원해왔다.

지난달 얼굴없는 천사가 10㎏ 쌀 60포대를 용진읍행정복지센터에 놓고 간 이후 이웃돕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전북공동모금회에 기탁돼 긴급지원, 명절지원사업 등 일반사업비와 관내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로 쓰일 예정이다.

강신영 용진읍장은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후원을 이어나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장수 계남면, 이창근 지사협 위원장 쌀국수 40박스 기탁

장수군 계남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이창근씨가 홀로 계신 어르신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쌀국수 40박스를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창근 민간위원장은 작년 밀가루, 냉장고 기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부활동을 이어나가며 지역 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계남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응수 계남면장은 "성품을 기탁해주신 위원장님의 정성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 · 부녀회 후원금 기탁

진안군 부귀면(면장 한재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석근)와 부녀회 연합회(회장 김곤숙)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 내 저소득 취약 가구를 위해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해 저소득층, 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돋보기 안경지원, 정성찬 밑반찬지원, 김치 · 돼지고기 나눔, 사랑의 호떡 나눔 행사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등 복지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